

중독과 신앙공동체

안 경 승*

국문초록

중독은 비단 사회적 문제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 역시 개입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신앙공동체는 중독에 대한 치유적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다. 중독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의 필요성을 논증하기 위해 중독의 영적, 관계적, 성격적 측면을 살펴 보았다. 중독대상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대체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중독은 중독 행위를 초래하는 성격적 성향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신앙공동체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더 나아가 신앙공동체의 구체적인 치유적 요소를 신앙적 및 관계적 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공동체만이 중독 치유의 본질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영적 자원이 공동체 내의 구성원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활용되고 적용된다. 여러 실제적인 치유 요소 중에 고백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었다. 관계적 요소는 유용성, 수용성, 진정성의 차원에서 다양한 일반적 관계이론의 치유적 근거와 적용을 시도하였다.

중심단어 : 중독, 신앙공동체, 관계, 수용성, 진정성

• 논문 투고일: 2010년 09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0년 11월 10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10년 10월 22일

I. 여는 글

청소년 가운데 게임에 빠져 학업을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게임을 못하게 하는 부모나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성인도 게임에 빠져서 개인과 가정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몇날 며칠 동안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목숨을 잃는 일까지 생겨났다. 그동안 성인의 게임 중독 현상은 성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자 수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20~30대 후반의 성인 인터넷 중독자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취업난과 고용불안 등으로 대학생들의 게임중독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불안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에 대한 현실도피책으로 게임이나 인터넷에 매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드는 것은 보상과 함께 그러한 행위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이 처한 괴로운 현실을 잊게 만드는 효과 때문이다.

도박중독 역시 심각한 상태이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10년 6~7월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국내 사행산업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박 중독 유병률은 6.1%로 나타났다.¹⁾ 도박 중독 유병률은 ‘특정 모집단에서 도박 중독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일컫는 말로, 우리나라 성인 인구 3천 700만 여명 가운데 200만명이 도박 중독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이중 50만명(1.7%)은 치명적인 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어 당장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분류된다.

예전부터 ‘도박에 빠지면 부모도 못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도박이든 게임이든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을 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한다는 점이다. 중독에 빠지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 바뀐다. 무조건 중독대상이 자신의 최고가치가 되어 다른 것들은 하찮게 여기는 흑백논리에

1) “국내 도박중독자 200만명 vs 치료센터는 단 3곳”, 「노컷뉴스」, 2010.09.11.

빠지게 된다. 그리고 점점 피폐한 생활에 빠져들지만 본인은 인식하지 못한다.

문제는 이처럼 심각한 수준의 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도박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중독예방치유센터’에서는 중독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비롯해 임시거처를 제공한다. 또 공동체 생활과 취업 지원 등을 통해 도박 중독자들의 재활을 돕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 중인 센터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적으로 3곳에 불과하다. 국내 도박 중독자의 수가 200만명에 달하는 반면 각 센터 당 관리 가능한 인원은 5천 600명밖에 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점차 심각해지는 중독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치유적 자원으로 신앙공동체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물론 신앙공동체는 신앙적 가치와 방향을 전제한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 신앙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공동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중독자를 돕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신앙공동체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현실적인 난관이 산재해 있지만, 그 필요성과 가능성을 살펴본다.

II. 펴는 글

1. 중독과 관계

중독은 근본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활동에 대한 강력한 애착의 발달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결과가 한 개인의 삶에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생겨난다.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중독의 원인을 제시해 왔지만, 근래에는 어느 하나 만이 아닌 생물학적, 정신 심리적, 사회적, 도덕 내지 영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²⁾ 여기서는 중독의 치유에

2) 김교란, “중독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 『중독의 이해와 상담실제』 제1장 (서울: 학지사, 2009), 49.

있어서 신앙 공동체와 그 안에서의 관계의 필요성을 논증하기 위해, 중독의 영적, 관계적, 성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1) 영적 영역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분과의 교제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도록 창조되었다.³⁾ 전통적으로 이러한 인간의 관계적 속성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 개념으로 설명해 왔다.⁴⁾ 즉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참여하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본래 창조되었던 때의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행복을 추구한다. 비극은 인간은 잘못된 것을 사랑하거나, 바른 것이라고 해도 균형을 잃고 탐닉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노예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있어서 중독의 경험은 누구에게도 멀지 않다. 어떤 것도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중독, 승진욕구, 과도한 걱정, 음란물, 과식, 메시아 신드롬(‘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생각’)도 게임, 도박, 알코올, 담배, 약물 만큼 위험할 수 있다. Carl Jung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한 후에 이렇게 평가한다. “알코올에 대한 환자의 갈망은 인간존재의 온전함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과 낮은 차원에서 동일한 성격이 있고, 이것은 중세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욕구라고 말할 수 있다.”⁵⁾ Jung은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욕구와 중독 경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중독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대체물과 보상으로 중독물질을 찾게 된다.

중독은 인간의 욕구가 고착되고 에너지가 어떤 특정한 행동, 물질, 또는 사람에 예속하게 되는 모습과 존재의 상태이다. 이러한 집착의 대상은 하나님을

3) Anthony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MI.: Eerdmans, 1994), 75-85.

4) Miroslav Volf,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Grand Rapids, MI.: Eerdmans, 1997), 76-80; Stanley J. Grenz, *Renewing the Center: Evangelical Theology in a Post-theological Era*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0), 213.

5) Carl Jung, "The Bill W.--Carl Jung Letters," *Revision* 10, no. 2(Fall 1987): 21.

대신하는 일종의 우상이다. 중독에 빠져 있는 동안 중독자는 자신에 대한 더 좋은 감정을 느끼고 주인공인 듯 생각하며,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여긴다. 홀로 있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있고, 더 나아가 강력해진 자신을 발견한다. 인간의 우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비교할 수 없고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 점차 그들은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삶을 지배하는 강박대상이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 스스로와 중독의 대상이 된 사람이나 물질까지도 황폐하게 만드는 파괴적 패턴이 자리 잡는다.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금단증상과 재발을 반복한다.⁶⁾

중독이 사회 문제로 점차 심각해지면서 중독을 질병이나 심리적 문제로 이해하고 이에 따른 치료적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중독이 여러 일차적 유발 요인과 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가 통합적 접근을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유전적 요소, 뇌 생리학 또는 사회 환경적 정황을 살펴보면서 도움을 받게 된다. 더 나아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단순히 도덕적이고 범신론적인 영성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해답을 발견해야만 한다.

특히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Cornelius Plantinga는 중독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중독자는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죄인이지만 연약한 이들로써 그들의 실패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알기 어려운 요소들의 결합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기에 단지 거만하거나 어리석은 치료사만이 중독에 대한 명료한 진단을 제시한다고 말할 것이다. 죄와 중독의 관계에 대한 표준적인 판단과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설명이 쉽지 않다. 우리는 중독이 단순히 죄라고 한다면, 또는 죄와는 상관없는 질병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⁷⁾ 죄와 중독의 관계는 마치 벤 다이어그램과 같이 두 개의 원이 겹쳐진

6) Thomas Bien & Beverly Bien, *Mindful Recovery: A Spiritual Path to Healing from Addic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2002), 8.

7) Cornelius Plantinga,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 A Breviary of Sin* (Grand Rapids, MI: Eerdmans, 1995), 140.

모습과 유사하다. 겹쳐지지 않은 부분, 즉 죄와 관련 없는 중독의 영역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의 중독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영향을 받은 유아의 경우가 이러한 범주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⁸⁾

그러나 두 원이 겹쳐지듯 중독과 인간의 죄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 본성상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에 매이게 되는 존재이다. 죄와 중독과의 관련성은 첫째, 성경은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악한 것은 물론이고 좋은 것도 중독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 었매이게 하는 것은 인간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남용과 오용으로 발전한다.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었매이지 아니하리라”(고전 6:12)라고 말한다.

Plantinga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비난 받아 마땅한 어떤 생각, 욕구, 정서, 말, 행위 또는 있어야 할 것의 부재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죄를 행하고자 하는 성향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덧 붙여야 한다. 죄라는 단어는 행동과 성향 모두를 언급하는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⁹⁾ 인간의 말과 행동, 생각, 그리고 성향 초차 지속적으로 주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 죄의 행동은 어떤 특정한 집착과 관련되지 않을 수 있지만 중독이 죄의 많은 표현 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이다. 중독은 도덕적 악의 성향이 있고 도덕적 악은 죄에 주도권을 내어준다.

둘째, 죄는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독과 영역을 같이 한다. Edward T. Welch는 죄의 역설적 성격에 대해서 지적한다. “죄는 우리를 속수무책으로 통제 불가능하게 하든가, 아니면 빈틈없이 계산적이 되게 한다. 비록 인간에게 아픔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책임을 피할 수는 없

8) 이것이 원죄라는 차원과 원죄 이후에 환경과 사회 더 나아가 타인(부모)에게 뿌리 내린 죄의 영향력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다.

9) Plantinga,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 13.

다. 모든 죄는 인간을 가련한 노예로 만드는 동시에 명백한 반역 또는 이기적으로 만든다. 이것이 확실히 역설적이지만, 모든 죄로 인한 습관의 핵심적인 본질이다.”¹⁰⁾

죄의 파괴적인 성향은 인간을 영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무력하게 노예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여 빠져들게 한다. 그 노예의 굴레에 빠져들게 하는 죄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독이다. 음주, 담배, 성중독, 마약의존, 그리고 동반의존의 모든 형태는 단지 노력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중단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고통 또는 금단증상까지 찾아온다. 중독은 강제적이고 고압적으로 인간을 압제하고 하나의 법이 된다(롬 7:17).

셋째, 중독의 핵심적인 문제인 자기 통제의 실패와 의지의 연약함은 죄와 관련이 있다. 인간은 본래 이 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창 2:16)라는 명령을 받은 존재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선택과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 범죄하였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역하였고 자유를 남용하여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능력을 상실하였다.

Gerald G. May는 중독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결정적인 전환국면에서 자기 기만과 함께 의지능력의 소멸을 지적하고 있다.¹¹⁾ 처음에서는 중독의 대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묵인하며 의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점차 몸, 마음과 영의 반응 능력이 줄어든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창의적으로 중독적 행동을 정당화하고 지속한다(예: 부인, 합리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 등). 급기야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고자 하는 마음과 유혹 사이의 갈등에서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포기한다. 감춰보려고 하지만 개인의 삶이 일그러지고 주변의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May는 이렇게 말한다. “유혹의 근원과 목적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10) Edward T. Welch, *Addictions: A Banquet in the Grave: Finding Hope in the Power of the Gospel* (Phillipsburg, NJ: P & R Publishing, 2001), 43.

11) Gerald G. May, *Addiction and Grace*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8), 26-31.

하고, 성경은 그 유혹에 대한 일관성 있는 관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중독의 출발점이다. 우리를 집착하게 하는 생물학적 요소로 단순히 그것을 보든지, 아니면, 어두운 외적 힘에 의한 유혹으로 보든지, 또는 둘 모두로 보든지 간에, 유혹은 항상 처음에 찾아오는 것이고 중독에 있어서 초기에 주어지는 기회이다. 한 번 집착이 전적으로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동기는 혼합되고 선택의 자유는 심각하게 타협하게 된다. 그러나 단지 집착에 대한 잠재성이 존재하는 때인 유혹의 단계에서, 우리의 '네' 또는 '아니오'가 모든 것을 다르게 한다."¹²⁾ 인간이 '아니오'라고 하지 못하면, 욕구는 분명히 장성하게 되고 충분히 자라게 되면 죽음으로 가게 된다(약 1:15). 죄의 성향과 행동은 단지 우연한 행동으로 남아있지 않고, 인간의 의지와 자유의 죽음을 초래한다. 죄가 인간의 삶에 들어오면 인간에게 달라붙고 영혼의 통제를 빼앗는다(히 12:1). 인간은 행하는 것에 의해서 변하게 되고, 행동은 점차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고착된다. 스스로가 중독의 힘을 거절하고 다시 자유하게 되는데 무능해진다.

치료현장에서 인간의 의지와 중독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네 가지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¹³⁾ 첫 번째 관점은 중독을 질병으로 보는 것으로, 생물학적 의존성이 일단 생기면 사람은 그 욕구에 매이게 되고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중독을 자기 투약(self-medication) 또는 합리적 소비자로서 중독 행동을 선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중독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이성적 자유의사에 의해서 수반되는 행동으로 평가한다. 세 번째 관점은 중독을 환란의 길(primrose path)로 빠져드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사람은 유혹에 걸려들었다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중독 대상에 점차적으로 빠져들게 된다. 네 번째 관점은 중독을 분열된 자기(divided self)의 한 측면으로 보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중독에 빠져든 자기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기가 함께 존재한다.

중독과 관련된 의지적 측면을 언급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12) May, *Addiction and Grace*, 115-116.

13) Jim Orford, *Excessive Appetites: A Psychological View of Addictions*,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2002), 346-347.

다. 중독자를 단순히 동정할 수만은 없다. 중독의 원인으로 단지 생물학적 또는 조건에 무게 중심을 두어서도 안된다. 성품, 도덕적 책임, 의지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¹⁴⁾ Linda A. Mercadante은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관점을 지지한다. “중독을 죄라고 하는 것이 지나친 죄의식을 만들어내고 곤궁에 빠지게 하며, 무력한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간의 선택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무책임의 방향으로 지나치게 나아가게 할 수 있으며, 중독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의지력을 약하게 한다.”¹⁵⁾

반면에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나감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인간의 본래적인 자리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때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요 15:1-5). 전도서 기자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이 부여된 의지가 아니고는 인간은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전 6:7-9).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의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간의 중독을 해결하는 열쇠이다.

특별히 신앙공동체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장소이고 거기서 죄인은 회복의 여정에 승리를 경험한다. 나 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돕는 이웃의 손길을 발견하고 만나는 장소가 공동체이다.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약 5:16)고 말씀하고 있다. 신앙공동체는 고백과 기도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이다.

Rod Wilson은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이 사사롭고 개인적인 결정으로 이해될 때, 그리스도 공동체와 연합한다는 것이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의

14) Karl Menninger, *Whatever Became of Sin?* (New York: Hawthorn, 1973), 13-37, 68-70.

15) Linda A. Mercadante, “Sin, Addiction and Freedom,” in *Reconstructing Christian Theology*, eds. Rebecca S. Chopp & Mark L. Taylor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4), 223.

무로만 남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¹⁶⁾ 또한 치료현장이 지나치게 개인화되었을 뿐 아니라 신앙 역시 개인주의화 되었다고 분석하며 영성과 사회성의 통합을 주장한다. “불행하게도 영성과 사회성을 분리하는 것은 곧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인이라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또한 영성과 사회성을 분리함으로써 진리라는 것이 공동체를 통한 활기찬 생활 양식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확신과 관련된 지식인 것처럼 되어 버린다. . . . 진리는 사회적 관계에서 표현되지 않고 개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통해 확인되지 못한다는 점이다.”¹⁷⁾

2) 관계적 영역

관계성으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고 증거되고 있다(창 1:27). 여기서 아담은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형성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창 2:18)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에도 인간은 더 필요한 관계의 영역이 있었다.¹⁸⁾ 아담은 내면적인 행복과 만족을 위해, 동반자 관계와 사회적 교제를 필요로 했다. 타락하기 전에도 사회적 욕구에 대한 개인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다. 타락과 함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있던 관계도 심하게 왜곡되었다.¹⁹⁾

기독교 상담학자 Mark R. McMinn과 Clark D. Cambell은 관계적 측면에

16) Rod Wilson, *Counseling and Community*, 김창대 역, 『상담과 공동체』 (서울: 두란노, 1997), 31.

17) Wilson, *Counseling and Community*, 28-29.

18) Ray Anderson, *On Being Human: Essays in Theological Anthrop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82), 48.

19) William T. Kirwan,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A Case for Integrating Psychology and Theology*, 정동섭 역,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본 현대 기독교 상담학』 (서울: 예찬사, 2007), 46.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의 세 가지 영역(기능적, 구조적, 관계적)을 접목시키는 상담적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²⁰⁾ 하나님의 형상을 기능적(functional) 관점에서 보는 것은 인간 행동, 특별히 창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창 1:27-28; 시 8:5-8). 하나님 형상에 대한 구조적(structural) 관점은 인간의 윤리적 또는 이성적 능력을 강조한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 사건의 의미를 구성해 가는지를 염두에 두고 표면적인 행동과 생각의 이면을 보는 것이다.

세 번째 범주인 관계성(relational)은 하나님의 관계적 성품을 반영하는 인간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친밀한 관계와 사랑과 신뢰에 대한 인간의 필요가 성경 전반에 걸쳐 강조되고 있다. 하나님이 한 위 안에 세 인격이 있듯이, 남성에게는 여성이 여성에게는 남성이 필요했고, 또한 확대된 관계 속에서 함께 함으로 온전한 전인이 된다. “인간의 도덕적 그리고 이성적 구조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정황에서 깊이 새겨진다.”²¹⁾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은 관계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인식한다. 특히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을 드러냈고 우리의 모범이 된다(골 1:15).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 까지도 희생할 정도로 이웃과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본다(롬 5:6-8). 우리는 이러한 놀랍고 웅대한 진리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고 목적이 구체화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역시 그러한 관계를 맺어 가도록 창조하셨다.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즉 용서하고 참고 지속하는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간다.

치료 현장에서 관계적 접근은 지속적으로 논의된 내용이다. 자기 심리학이나 대상관계이론을 포함한 정신역동의 이론은 인간의 병리와 치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간다. 또한 인간의 관계적 성향은 애착이론

20) Mark R. McMinn & Clark D. Campbell, *Integrative Psychotherapy: Toward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oach* (Downers Groves, IL.: IVP Academic, 2007), 27-36.

21) McMinn & Campbell, *Integrative Psychotherapy*, 35.

과 같은 인간발달의 이론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Philip J. Flores는 물질사용 장애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특히 취약한 이유를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정서를 조절해 주는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결여된 친밀함을 술이나 약물로 대체하기 쉽다. 타인들과 정서적 친밀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취약한 개인들은 강박 행동들로 이를 대체한다(섹스, 음식, 약물, 알코올, 일, 도박, 컴퓨터 게임 등).”²²⁾ Dolly Demitro 역시 같은 관점에서 “마약이란 물질 자체는 마약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에 5~15%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머지는 본인의 정서적 의존과 관련된 문제들이다”라고 지적한다.²³⁾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는 능력을 강화시키기 전에는 중독에 취약한 상태로 남는다. 상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처리하려고 시작한 중독의 패턴은 안 그래도 취약한 관계 능력을 더욱 손상시킨다. 장기간의 중독은 그 자체의 독성 때문에 신경생리 기능을 손상시키고 현재의 정신구조를 침식해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중독자들은 초기에 갖고 있었던 대인관계 기술마저도 잃게 된다. 대인관계를 관리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물질에 대한 의존도도 더욱 커져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황폐화와 중독 반응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가 성공하려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물론 이것이 중독 물질에 대한 일차적인 단절 절차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적으로 중독대상과의 파괴적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필요한 절차이다(기능적, 구조적 접근).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재발의 위험성이 있고 교차중독물질로의 전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중독에 취약했다면, 관계가 온전해 지도록 도움을 주어서

22) Philip J. Flores, *Addiction as an Attachment Disorder*, 김갑중 · 박춘삼 역, 『애착장애로서의 중독』 (서울: NUN, 2010), 11.

23) Dolly Demitro, *Accros à l'amour*, 연속진 역, 『자신을 향한 사랑중독』 (서울: 우듬지, 2009), 76.

중독 대상이 상대적으로 힘을 잃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관계적 접근).

Lewis와 그의 동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AA와 이와 유사한 모임들이 보여주듯 중독자의 재발을 막아주는 것은 인지보다는 친교이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얘기를 공유하는 일은 무언중에 힘을 불어넣는데 이것은 로버트 프로스트가 다른 문맥에서 ‘삶의 정화 또는 섹트(sect)나 밀교 등에 바탕을 둔 그런 위대한 정화는 아닐지라도 혼동에 맞서는 일순간의 머무름’이라고 부른 그것이다. 한 집단 내에서의 대뇌 변연계의 조절은 구성원에게 균형을 회복하게 하고 그들에게 집중되고 온전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²⁴⁾ 더 나아가 이들은 건강한 관계 경험은 중독물질에 의해 훼손된 중독자의 신경생리학 적 항상성까지 가져 온다고 한다. 인간의 정서와 신경생리학이 하나의 열린 피드백 고리이며, 이 고리는 애착적 인물 또는 자기대상으로부터의 입력과 외부적인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치유의 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 공동체이다. 공동체가 중독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치유가 진정으로 기독교적이기 위해서는 신앙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만나 주실 뿐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내의 관계는 사람을 변하게 한다. 소그룹 신앙 공동체를 연구한 Gareth W. Icenogle는 다음과 같이 통찰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치유는 공동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 거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신다. 고백과 비난의 자제, 신뢰, 자발성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유와 연관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은혜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두 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임하는 성령의 선물이다. 치유 받고자 기도하는 소그룹은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치유와 발전은 성령의 역

24) Thomas Lewis, Fari Amini, & Richard Lannon, *A General Theory of Love* (New York: Vintage Books, 2001) 214. Flores, *Addiction as an Attachment Disorder*, 51에서 재인용.

사와 함께 동시에 발생한다.”²⁵⁾

3) 성격적 영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각각의 독특한 성격적 특질을 가지게 하였고, 이러한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셨다. 이러한 성격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다양성을 수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개인의 성장과 관계의 갈등과 회복을 돕는다. 그러나 단지 성격의 다양화로 이해될 수 없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문제를 초래하는 성격적 문제가 있다. 이것은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로 분류되는데, 성장과정에서의 뿌리 깊은 관계 역사와 개인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DSM-IV의 다축적 진단체계에서는 성격장애를 다른 임상적 증상과 구분하며 두 번째 축으로 설정한다. 첫 번째 축인 임상적 증상이 치료로 경감되거나 나아지는 반면에, 성격장애는 고질적인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임상적 축 1장애와 성격적 장애 사이에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²⁶⁾ 중독의 임상적 증상 역시 그 사람의 성격적 성향, 즉 전반적인 생활 모습, 존재 양식 또는 행동 양식의 표출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중독자의 전반적인 성격적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Lance Dodes가 지적하고 있는 유의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격은 외적인 세계와 한 사람의 내적인 감정 모두에 대한 종합적인 적응방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전반적인 특질이다. . . . 그 사람의 전체적인 성격과 중독행위를 혼동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적어도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중독문제를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과 근본적인 삶의 방식에서 다르다고 오해될 수 있고, 둘째 중독의 주제가 성격적 문제인 것처럼 제시되면서, 도덕적으로 성격적 결함을 가진 것 같이

25) Gareth W.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김선일 역,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서울: SFC, 2007), 422.

26) Theodore Millon, Carrie M. Millon, Sarah Meagher, Seth Grossman, & Rowena Ramnath, *Personality Disorders in Modern Life*, 2nd ed.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2004), 10-11.

여겨질 수 있다.”²⁷⁾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격에 대한 편향된 평가나 성격장애자라는 선부른 진단은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중독은 단지 어떤 물질이나 대상에 취약하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중독물질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는 않지만 왜곡된 중독적 생각(addictive thinking)과 결합이 있는 생활패턴, 즉 마른 주정(dry drunk)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 있다.²⁸⁾ 중독 대상을 끊어주는 것만이 아닌 전반적인 성격적 성향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격적 문제는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이나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관계 중심적 인간이해를 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격이 개인이 한평생 동안 가진 관계,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 가진 대인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본다.”²⁹⁾ 이들은 성격이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특징적인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격장애를 가진 중독자는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관계하지 못하기에 실패한 관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충동적이고 기만적이고,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고 비난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

중독자는 반사회적 성향, 경계선적 성향, 히스테리 성향 등의 대표적인 성격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³⁰⁾ 성격적 문제로 인해서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중독이 되면서 성격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어렸을 때부터 알코올이나 마약류를 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 알코올이나 마약류를 한 사람에 비해서 거칠어지고 공격적이고 황폐화되는 등의 반사회적 성향과 같은 성격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중독이 지속되다보면 성격이 예민해지고 자기중

27) Lance Dodes, *The Heart of Addiction* (New York: Harper, 2003), 100-101.

28) Abraham J. Twerski, *Addictive Thinking: Understanding Self-Deception* (Center City, MN.: Hazelden, 1997), 4.

29) Arthur H. Chapman, *Harry Stack Sullivan: His Life and His Work* (New York: Putnam's Son, 1976), 69.

30) 박상규, “마약류 중독 상담”, 『중독의 이해와 상담실제』 제3장 (서울: 학지사, 2009), 120-121.

심적이 되며,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갖는데 문제가 생긴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자기보다 더 위대한 힘(super power)’에 대해서도 인위적이거나 피상적인 관계에 머문다.³¹⁾ 또한 중독자 중에는 의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의존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주체성이 부족하여 사람이나 물질 등에 의존하여 불안과 부적절감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중독을 끊고 지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관계를 포기하거나 관계가 왜곡된 패턴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대안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공동체의 정황에서 새로운 관계 체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McMinn은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관찰하는 능력에 있어서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관계 중심적 치료를 제안한다. “관찰은 한 사람이 적어도 일시적이라도 대안적 관점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세계에 대한 경직되고 불변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다. 치료사가 내담자의 관찰적 예고에 다가서려고 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다. . . . 이들은 삶을 명백하게 보기 위해서 치료자의 관찰적 예고를 빌려야만하고 이는 신뢰적 관계의 현장에서 관계 중심적 접근을 통해 가능하다.”³²⁾

중독자의 성격에 대한 관계 중심적 접근은 그 특징상 단기간에 성취되기가 어렵고, 장기간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이다. 좀 더 근본적 변화는 영적 교제를 필요로 한다. 성격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성경은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어떤 사람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사람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내에서 훈련해야 한다.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훈련의 중요한 한 축으로 제시하는 것이 공동체이다.³³⁾ 연약한 이들에게 도와줄

31) Flores, *Addiction as an Attachment Disorder*, 235.

32) McMinn & Campbell, *Integrative Psychotherapy*, 322.

33) Henri J. M. Nouwen, “An Invitation to the Spiritual Life,” *Leadership* 2, no. 3 (1981): 53-64.

친구가 필요하고, 그러한 도움 속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게 된다. 자신의 삶에 다른 사람들을 관련시키는 것은 변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되고 이것이 결여된 진정한 변화의 방법은 없다.

2. 신앙공동체의 치유적 자원

신앙공동체는 서로 상처를 고쳐주고 고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장이다. 그러나 공동체는 또한 거리감, 불신, 두려움, 침묵, 방관의 모임이 될 수 있다. 어느 신앙공동체이든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구성원들은 갈등이 생길 때, 해결을 위한 노력을 회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난의 화살이 돌러지고 혐의가 물어진다. “대화는 피상적으로 흐르고 결국 뭔가 해명되지 않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에 의해서 침묵은 곧 소문으로 그것도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비난, 정죄로 가득 차게 된다.”³⁴⁾ 공동체 역시 죄의 실체에 깊게 영향을 받고 있고 왜곡된 관계들로 가득 차 있다. ‘서로 짐을 지라는’ 명령을 실천하도록 소명을 받은 신앙공동체는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앙공동체의 치유적 요소를 신앙적 그리고 관계적 요소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1) 신앙적 요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아니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중독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중독의 대상을 포기하도록 도우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지만 인간의 손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³⁵⁾ 인간은 반복해서 실패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잠언기자는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34) David Augsburg, *Caring Enough to Forgive* (Ventura, CA.: Regal Books, 1981), 80-81.

35) May, *Addiction and Grace*, 17.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잠 24:16)라고 말한다. 의인도 악인이 그러하듯 넘어질 수 있다. 차이는 의인은 그 비참함에 넘어져 있는 대신에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미 7:8).

(1) 그리스도 중심

신앙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에 기초한 사람과의 연합이다. 인간 공동체는 하나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풍요로워진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죄인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생으로 온전해질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진정한 신앙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근원이 되신다.³⁶⁾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통해 관계를 맺으셨다. 열 두 제자이든 여인들이든, 칠십이든, 혹은 백이십 문도이든 간에, 예수님은 그들이 존재하는 데 중심이 되는 원동력(driving force)이었다.³⁷⁾ 예수님은 왜곡되고 뒤틀린 공동체 가운데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내신 건강한 지도자셨다. 예수님은 기존의 공동체에 새로운 형식, 새로운 관점, 새로운 길, 새로운 가족의 개념과 삶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분에게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공동체 내의 관계의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라고 말하고 있다. 신앙공동체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구현되는 장소이다. 은혜는 성경의 기자들이 보았던 치유 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질 중의 하나이다(골 1:22; 요 1:16). 예수님께서서 은혜가 충만 하셨듯, 우리 역시 서로에게 은혜를

36) Paul David Tripp & Timothy S. Lane, *Relationships: A Mess Worth Making*, 이명숙 역, 『관계가 주는 기쁨』(서울: 미션월드, 2008), 35.

37)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284.

게 대하고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질병, 왜곡된 생각, 부패한 동기 그리고 악한 욕구를 본다.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은 냉소적이고 비관적이 되고, 자신에 대해서는 우월하고 오만하게 된다.³⁸⁾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지 않으면 신앙공동체는 이러한 사람을 용납하기가 어렵게 되고, 점점 거룩한 성자들의 형식적 모임으로 전락한다. 성경은 기독교인의 관계의 덕목이 겸손과 온유와 인내이며, 관계를 통해 정직과 평화, 용서와 긍휼, 그리고 사랑이 나타난다고 가르친다. 죄인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에서 이러한 덕목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신앙공동체도 복잡한 문제와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과 평화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은혜의 핵심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우리가 그분을 상대하지 않아도, 무시해도, 퇴짜를 놓아도, 멸시해도, 불순종해도,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악이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매하다고 잃는 것도 아니요, 얻어 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덜 사랑하시고 성공한다고 더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³⁹⁾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성원들 대하도록 훈련하는 현장이 공동체이다. 사랑에 기초한 은혜는 소망과 치유로 이끄는 자원이 된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셨을 뿐 아니라 진리 역시 충만했다. 진리는 건강한 단호함이다. 주님은 소통에 있어서 정직하고 솔직하지만 사랑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된다. 또한 진리는 단호함이나 정직함 그 이상의 신실한 순종을 의미한다(요 8:31-32).⁴⁰⁾ 기독교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순종으로 자라가도

38) Augsburg, *Caring Enough to Forgive*, 40-41.

39) Max Lucado, *A Gentle Thunder: Hearing God Through the Storm* (Nashville, TN.: Thomas Nelson, 1995), 46.

40) McMinn & Campbell, *Integrative Psychotherapy*, 355.

록 부름을 받았고, 진리로 돌보는 공동체는 거룩함과 건강한 삶으로 사람을 향하도록 돕는다. 공동체 구성원은 더 진실하게 살도록 서로 돕고 서로 좋은 모델이 되고 적절한 돌봄으로 격려한다.

(2) 고백

참된 신앙공동체에는 죄에 대한 회개를 포함한 고백이 있다. 정직한 고백을 통해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열린 대화의 장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고백은 쉽지 않은 것으로 교만이나 자기개방의 두려움과 수치가 장애물이 된다. Dietrich Bonhoeffer는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교만을 무너뜨린다. 우리가 죄인의 공개적인 죽음을 발견하게 되는 장소에 나아가는 것을 꺼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없다. 고백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감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때가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다.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진정한 교제로 나아가게 되고, 고백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확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형제 앞에서(이것은 하나님 앞이기 하다) 깊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낮아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를 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다.”⁴¹⁾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존중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개방할 수 있다. 고백하는 능력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신뢰함에서 시작된다. 삶을 함께 공유하며 아픔과 수치와 고통을 나누는 것은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다. 또한 고백은 공동체의 능력이 강화되면서 더욱 활성화된다. 공동체는 개인의 고백에 대해서 자비와 은혜로 수용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을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은 중요하다. 구성원 각자가 자신도 유사한 종류의 고통스럽고 불건전한 행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공동체가 개인적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더

41) Dietrich Bonhoeffer, *Life Together*, trans. John W. Doberstein (New York: Harper & Row, 1954), 114.

욱 커진다. 다른 사람의 고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자신도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으면서 비난이 사라진다. 고백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소속된 공동체로 하여금 건전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미 많은 중독치료를 위한 자조모임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신앙공동체에서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⁴²⁾ 중독자는 중독 대상을 통해 강력한 쾌감을 맛보았고 그 쾌감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중독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공동체 내에서 다른 중독자가 자기의 중독 문제를 부인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나는 중독자입니다”라는 고백은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자신들이 잠시 중독 물질과 떨어져 있는 것이지, 조금만 취약해져도 예전의 중독자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일깨워준다. 중독자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자기중심적인 행동, 부정적인 태도, 타락한 가치관과 죄성)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독증상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백은 또한 개인의 경험이 의미가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발전하면서 치료적 가치를 더하게 된다. 첫째, 과거 인생사를 슬회하는 것은 과거와 더 나아가서 현재와 미래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법을 배운다.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연속적인 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⁴³⁾ 둘째, 고백은 자신의 삶을 더 명확히 이해하게 한다. 다른 구조와 논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한다.⁴⁴⁾ 셋째, 고백이 나누어지는 경험은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의 끈을 강화시켜 준다.

42) Flores, *Addiction as an Attachment Disorder*, 229.

43) Jeremy Holmes,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이경숙 역, 『존 볼비와 애착이론』 (서울: 학지사, 2005), 233.

44) Michael White, *Maps of Narrative Practice*, 이선혜 · 정슬기 · 허남순 역, 『이야기 치료의 지도』 (서울: 학지사, 2010), 112-113.

2) 관계적 요소

중독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중독 생활의 쾌감이나 도취감 보다, 중독을 끊은 이후의 생활이 가져다 주는 보상이 강력해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부정적인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것에 빠져들 수 있어야 가능하다. 이 점의 영적인 해석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창조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경험의 부재가 중독을 만들어냈고, 따라서 회복도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님은 인간에게 깊은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평안으로 보상해 주신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된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24절).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어떠한 것에 강력하게 매여 있다는 것이다. 중독된 모습은 부정적인 것이지만, 그 집중력이 좋은 방향으로, 아니 더 근원적이고 진정한 힘과 복이 되는 방향으로 돌려져야 한다. 인간이 진정으로 빠져들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중독자에게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을 안내하고, 적용하고, 새롭게 하는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공동체는 첫째, 중독물을 대체하고 둘째, 관계를 통해 안정되고 적절한 자기대상(self object)의 역할을 하며, 셋째, 하나님을 만나는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공동체 내의 관계적 경험이 가지고 있는 치유적 역할의 내용을 John W. Drakeford는 열 가지로 세분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다.⁴⁵⁾

45) 공동체 체험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서 치유에 도움을 준 열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① 이전에 알지 못했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받아들인 것, ② 자신을 괴롭히던 것을 마음 속에 혼자 간직하기 보다는 말할 수 있었던 것, ③ 나에 대하여 느끼는 바를 다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준 것, ④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것, 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 지를 그룹이 가르쳐준 것, ⑥ 그룹 속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 ⑦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과 조언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삶에 대하여 자신이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 것, ⑧ 다른 사람을 만나는 방법을 배운 것, ⑨ 다른 사람이 당황스러운 일 가운데도 모험을 하며

(1) 유용성

유용성은 다른 구성원의 삶의 현실에 동참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여기 있다. 성공이나 실패에나,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지금 당신과 여기 함께 있다”라는 것이다. 공동체 내의 만남과 관계의 깊이는 이러한 상호 유용성에 달려 있다. 사람 사이의 상호 유용성의 정도는 그들 사이의 관계 능력을 정의하게 한다. 깊게 헌신된 관계에서는 유용성에 있어 어떤 조건이 거의 없다.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다는 것은 체험하는 관계의 차원이 깊어진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뢰에로 발전하게 한다.

중독자는 피상적인 관계만 맺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두려움 없이 적절한 의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유용한 자원이 된다. 공동체에서는 중독자가 마음껏 의존할 수 있거나 직 접화를 낼 수 있는 유용한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하면서 강한 적개심이나 양가감정을 다루는 법을 익힐 수 있다.⁴⁶⁾

(2) 수용성

공동체는 깊은 용납과 진정한 수용을 제공하는 현상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것은 첫째, “내 나름대로 생각한 너이기 때문이 아니고 단지 너이기 때문에 용납한다”는 것이다. 중독자가 버거워 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자기에 대한 수치심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수용의 환경은 중독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갈급하던 관계적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다. 수용을 경험하며 자신이 소속해 있음을 느끼고 자신의 모습을 공동체 안에서 발견한다. 또한 다른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동시에 유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는 가운데 자신도 동일한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것, ⑩ 그룹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보다 강한 신뢰감을 갖게 된 것 등이다. John W. Drakeford, *Integrity Therapy* (Nashville, TN.: B&H Publishing Group, 1985), 41-45. 세 가지 구분은 Augsburger가 지지의 공동체와 관련하여 강조한 것과 일치한다. Augsburger, *Caring Enough to Forgive*, 83-88.

46) Flores, *Addiction as an Attachment Disorder*, 269-270.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다른 사람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둘째, 수용은 마치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인간을 안으시는 것과 비슷하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인간의 세상을 아시고 중독자의 수치와 고통을 이해하신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수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 분노, 실망에 주의를 기울이고 나누는 것이다. 중독자의 특성상 개인 상담자가 말하는 것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신과 비슷한 처지를 경험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일치감을 갖고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⁴⁷⁾ 중독자들은 자신의 경험하고 있는 유사한 문제들을 서로가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지지를 받음으로써 중독을 이겨낼 동기를 갖게 된다.

공동체 내의 치료전략으로 만족시키기(gratification), 지지하기(support), 담아주기(containment)와 같은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자기 심리학에서는 자기대상 욕구, 즉 자기보다 더 큰 무언가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인간들 속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 소외와 고립에 맞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중요하게 여긴다.⁴⁸⁾ 이를 위해서 제시되는 공감, 반영(mirroring)과 정서적 조율로 형성되는 일관된 홀딩환경은 자신의 모습이 수용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3) 진정성

진정성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있어 안심을 느끼게 한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 안에 공유되어진 진정함에서 자라난다.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자신이 된다는 것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에서 자유하고, 가치관을 확증하고 표현하는 것에서 자유하고,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서 자유하고 다른 점들을 직면하는 것에서 자유하고, 돌봄을 표현하는데 자유하는 것이다. 진정성이 있으면 돌봄과 직면, 분노와 인정, 반대하는 것과 관심을 기

47) 박상규, “마약류 중독 상담”, 147.

48) Heinz Kohut, *The Restoration of the Self* (Madison, CT.: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77), 187-188.

올리는 것이 함께 한다.

첫째, 진정성은 공동체가 구성원들을 수용하는 것 만이 아니고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최적의 좌절(optimal frustration)이 일어나는 치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의존이나 수용적 욕구를 채워주고 감싸면서 비밀관성 또는 모순이 드러나도록 돕는다.⁴⁹⁾ 둘째, 진정성을 가진 공동체는 갈등과 타협이 가능하다. 상호 관계는 책임을 인식하고 함께하면서 기쁨과 좌절을 이겨내는 것이다.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상호 합의와 동의를 위한 상호 작용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 지배와 복종, 종속과 자율 같은 중요한 공동체적 주제가 갈등 속에서 해소되고, 타협을 통해서 성숙해 가야한다. 셋째,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열심히 본받도록 자극하는 역할 모델이 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에 대한 모델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적절한 돌봄, 건강한 경계선, 피드백, 지속성을 모델화하면서 경험하는 것이다.

III. 닫는 글

선지자 예레미야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 13:23)고 말한다. 피부가 검은 구스 사람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이 얼룩덜룩한 반점을 바꿀 수 없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듯이, 악에 익숙한 유다의 돌이킴은 불가능한 것이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변화를 일으킬 만한 능력도 그런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유다의 죄성이 지속적이고 이미 굳어버린 습관이 되어버리듯, 중독도 인간의 능력을 무력화한다.

무력화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여 구속하셨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 사로 잡

49) McMinn & Campbell, *Integrative Psychotherapy*, 374.

힌 바 된 것이다. 이 복음에 소망이 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자녀로 삼으신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 단지 사로잡혀진 삶이 아니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오히려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원하는 종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혼란되는 곳이 신앙공동체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검증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이 고백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쫓는 만남이 있는 곳이다.

많은 신앙의 모임이 있지만, 여전히 중독의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속할 곳은 많지 않다. 진정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줄어들고 홀로 남은 이들은 중독에 취약해 지고 있다.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간절한 관계의 갈망으로 어딘가를, 무언가를 찾는 이들에게 신앙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다. 비록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여전히 신앙공동체는 우리의 소망이다. 신앙공동체가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고 그 구성원들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 중독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 참고문헌 】

- 김교현 · 박상규 · 강선군 · 김교현 · 서경현 · 신성만 · 이형초 · 전영민. 『중독의 이해와 상담실제』. 서울: 학지사, 2009.
- Anderson, Ray. *On Being Human: Essays in Theological Anthrop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82.
- Augsburger, David. *Caring Enough to Forgive*. Ventura, CA.: Regal Books, 1981.
- Bien, Thomas. & Bien, Beverly. *Mindful Recovery: A Spiritual Path to Healing from Addic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2002.
- Bonhoeffer, Dietrich. *Life Together*. trans. John W. Doberstein. New York: Harper & Row, 1954.

- Chapman, Arthur H. *Harry Stack Sullivan: His Life and His Work*. New York: Putnam's Son, 1976.
- Demitro, Dolly. *Accros á l'amour*. 연속진 역. 『자신을 향한 사랑중독』. 서울: 우듬지, 2009.
- Dodes, Lance. *The Heart of Addiction*. New York: Harper, 2003.
- Drakeford, John W. *Integrity Therapy*. Nashville, TN.: B&H Publishing Group, 1985.
- Flores, Philip J. *Addiction as an Attachment Disorder*. 김갑중 · 박춘삼 역. 『애착장애로서의 중독』. 서울: NUN, 2010.
- Grenz, Stanley J. *Renewing the Center: Evangelical Theology in a Post-theological Era*.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0.
- Hoekema, Anthony A.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MI.: Eerdmans, 1994.
- Holmes, Jeremy.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이경숙 역. 『존 볼비와 애착이론』. 서울: 학지사, 2005.
- Icenogle, Gareth W.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김선일 역.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서울: SFC, 2007.
- Jung, Carl. "The Bill W.-Carl Jung Letters." *Revision* 10, no. 2 (Fall 1987): 19-21.
- Kirwan, William T.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A Case for Integrating Psychology and Theology*. 정동섭 역.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본 현대 기독교 상담학』. 서울: 예찬사, 2007.
- Kohut, Heinz. *The Restoration of the Self*. Madison, CT.: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77.
- Lucado, Max. *A Gentle Thunder: Hearing God Through the Storm*. Nashville, TN.: Thomas Nelson, 1995.
- May, Gerald G. *Addiction and Grace*.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8.
- McMinn, Mark R. & Campbell, Clark D. *Integrative Psychotherapy: Toward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oach*. Downers Groves, IL.: IVP Academic, 2007.
- Menninger, Karl. *Whatever Became of Sin?* New York: Hawthorn, 1973.
- Mercandante, Linda A. "Sin, Addiction and Freedom." In *Reconstructing Christian Theology*. eds. Rebecca S. Chopp & Mark L. Taylor.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4.

- Millon, Theodore., Millon, Carrie., Meagher, Sarah., Grossman, Seth. & Ramnath, Rowena. *Personality Disorders in Modern Life*. 2nd ed.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2004.
- Nouwen, Henri J. M. "An Invitation to the Spiritual Life." *Leadership* 2, no. 3 (1981): 53-64.
- Orford, Jim. *Excessive Appetites: A Psychological View of Addictions*.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2002.
- Plantinga, Cornelius.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 A Breviary of Sin*. Grand Rapids, MI.: Eerdmans, 1995.
- Tripp, Paul David. & Lane, Timothy S. *Relationships: A Mess Worth Making*. 이명숙 역. 『관계가 주는 기쁨』. 서울: 미션월드, 2008.
- Twerski, Abraham J. *Addictive Thinking: Understanding Self-Deception*. Center City, MN.: Hazelden, 1997.
- Volf, Miroslav.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Grand Rapids, MI.: Eerdmans, 1997.
- Welch, Edward T. *Addictions: A Banquet in the Grave: Finding Hope in the Power of the Gospel*. Phillipsburg, NJ.: P & R Publishing, 2001.
- White, Michael. *Maps of Narrative Practice*. 이선혜 · 정슬기 · 허남순 역. 『이야기 치료의 지도』. 서울: 학지사, 2010.
- Wilson, Rod. *Counseling and Community*. 김창대 역. 『상담과 공동체』. 서울: 두란노, 1997.

【 Abstract 】

Addiction and Faith Community

Kyung Seung Ahn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Addiction is not only a social problem but a Christian problem. Faith community can be a healing resource for addiction and social system to care people recovering from addiction. To demonstrate the need of communal approach to addiction, we will examine the spiritual, relational, characteristic aspects of addiction. Because addiction is a very complex condition, many experts call for an integrated approach. In the same way, ignoring the spiritual dimension leads to partial solutions. The objects of attachments are our idols, substitutes for the God and other human being we have rejected. And people with addiction have a distorted personality. The end result is a destructive pattern of abusing substances, people, or things to which we become adjusted. Ultimately the Christian faith is about transformation through relationship in faith community. We will emphasis that restoration springs from the healing context of faith community. The climate which nurtures such healing community has two Christian qualities which are Christ centered relation and confession, and three relational qualities which are availability, acceptance, and authenticity. Healing relationships are found in that community where grace and truth meet.

Key words: addiction, faith community, relation, acceptance, authenticity